

코스피	2481.12 (-76.86)	코스닥	672.85 (-20.91)
금리 (연이자율)	2.569 (-0.060)	환율 (원/달러)	1472.40 (+5.90)

명품 플랫폼 발란 기업회생 신청 02



## ‘트럼프發 패닉셀’에 한국도 아시아도 휘청

코스피 3% 하락... 2500선 붕괴 공매도 첫날, 외국인 1.6조 ‘팔자’ 정치적 혼란·성장률 하향에 불신

달러당 원화값 1472.9원에 마감 나스닥·닛케이도 ‘블랙먼데이’

공매도 재개 첫날 트럼프가 쓴 ‘리세션 롤백(침체를 건 리시안롤백)’의 파편을 맞고 코스피 지수가 2480선대로 추락했다. 원화값은 1470원을 넘어섰다. 3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00% 하락한 2481.12로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1월 6일(2488.6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코스닥 지수는 3.01% 하락해 672.85로 마감했다.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발표(4월 2일)를 앞두고 우려가 커진데다 미국의 스테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지연에 따른 국내 정치·경제 불안, 공매도 재개에 따른 불안감 등이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이날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1조6000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1조5000억원 가까이 물량을 받았지만 하락세를 막지 못했다.

지난 28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트럼프발 공포에 휘청이자 위험자산에서 받을 뻔 것이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기



공매도 재개 첫날인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2557.98)보다 76.86포인트(3.00%) 내린 2481.12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693.76)보다 20.91포인트(3.01%) 떨어진 672.85에 거래를 종료했다. /뉴시스

술주 중심의 나스닥(-2.70%)을 비롯해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1.69%),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1.97%) 등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다.

미국의 성장 둔화 위험이 고조되자 큰손들은 채권을 사들이고 있다. 1분기 미국 채권 수익률은 2.5%를 기록했다. 외국인이 받은 댄데는 외부 탓만 있는 게 아니다. 한국경제에 대한 믿음이 약한 탓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다. 지난해 예상치보다 0.4%포인트나 낮아졌다. 잠재 성장률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 예고다. 내수는 얼어붙고 수출은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지연이라는 정치 불확실성까지 커지면서 경제 심리가 얼어붙고 있다. 영국 소재 경제 분석기관인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제로 성장’(0.9%)을 전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등 한국 정치를 둘러싼 악재도 지수를 끌어내렸다. 씨티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예상치 않게 오래 지속되면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다소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경제 정책의 안정성과 효과가 저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원·달러 환율도 치솟았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3시 30분 기준 달러당 원화값은 6.4원 오른 1472.9원에 마감했다. 이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블랙먼데이를 연출했다. 일본 닛케이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05% 하락한 3만5617.56으로 거래를 마쳤다. 대만 가권지수는 4.20% 추락해 2만695.90을 기록했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15.56포인트(0.46%) 내린 3335.75로 장을 마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김승연 한화 회장 경영 승계 마무리

세 아들에 지분 절반 증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사진)이보유중인 한화 지분 22.65% 가운데 절반인 11.32%를 세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그룹 경영권 승계가 사실상 완료됐다.

한화는 31일 공시를 통해 김승연 회장이 보유한 한화 지분을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사장, 김동선 부사장에게 각각 4.86%, 3.23%, 3.23%씩 증여한다고 밝혔다. 증여는 다음달 30일 이뤄진다.

증여 후 한화의 지분율은 한화에너지 22.16%, 김승연 회장 11.33%, 김동관 부회장 9.77%, 김동원 사장 5.37%, 김동선 부사장 5.37% 등으로 바뀐다. 삼형제는 한화에너지의 지분 100%를 갖고 있어 이번 지분 증여로 세 아들의 한화 지분율은 42.67%가 돼 경영권 승계가 완료된다.

김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신속히 해소하고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지분 증여를 결정했다고 한화측은 밝혔다. 정상적, 필수적 사업 활동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및 한화오션 지분 인수가 승계와 연관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지배구조의 확실성을 제거하고 책임경영을 더욱 강화해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대응적 결단이란 내부 평가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이번 지분 증여로 승계가 완료됨에 따라 시급하고 절실한 대규모 해외 투자 목적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를 승계와 연결시키는 억측과 왜곡은 불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분 증여로 김동관 부회장 등이 내야 할 증여세는 2218억원(3월 4일~31일 평균 증가 기준) 규모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된 세금은 정도경영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06~2007년 김승연 회장이 한화 지분 일부를 증여했을 때 세 아들은 1216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김승연 회장도 지난 1981년 당시 역대 최대 수준인 277억원을 상속세로 냈다.

과세기준 가격은 한 달 후인 다음 달 30일 기준 전후 각각 2개월 추가 평균 가격으로 결정된다. 상장회사 내부자 주식 거래 사전 공시제도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주가가 낮은 시점에 증여를 결정했다거나, 주식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논란은 불식될 전망이다.

〈2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이승용 기자 lsy26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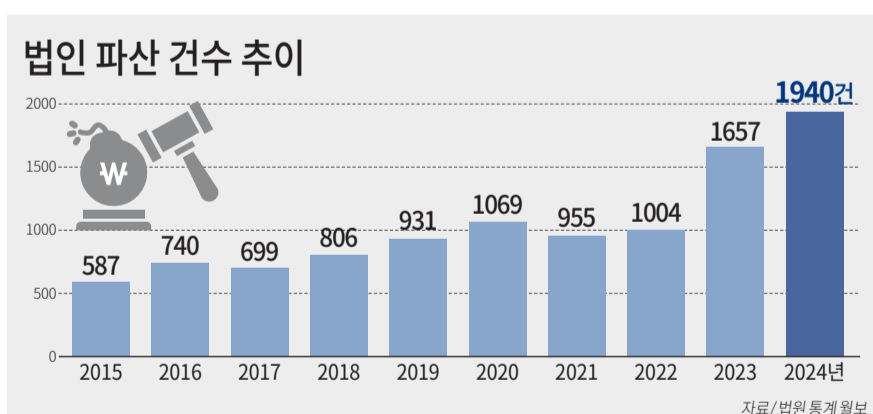
## 고금리·소비위축에 자영업자 연체율 10년 만에 최고치

중소법인·개인사업자 줄줄이 연체 자영업자 절반은 다중채무자 전락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되고, 소비자들이 지갑 문을 닫으면서 자영업자·중소법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이미 10년 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고, 중소기업의 파산 신청 건수도 같은 기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은행의 중소기업 연체율은 0.82%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0.18%포인트(p) 상승했다. 중소기업 연체율은 ▲2020년 0.48% ▲2021년 0.36% ▲2022년 0.36% ▲2023년 0.48% ▲2024년 0.64%로 올랐다. 코로나19 시기 연체율보다 2배가량 높아진 수준이다.

개인사업자(자영업자)대출 연체율도 높아졌다. 올해 1월 은행의 개인사



업자 연체율은 한 달 전보다 0.10%p 높은 0.70%를 기록했다. 개인사업자대출은 2020년 0.21%에서 2년 뒤인 2022년 0.26%로 소폭 오른 뒤 2024년 0.60%까지 올랐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지원이 끊기고, 고금리에 소비까지 줄면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

◆ 자영업자 2명중 1명은 다중채무자 문제는 이들이 1금융권 대출 원리금

상환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비은행권으로 밀려나 연체가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은행권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는 중소기업 연체율은 지난 2020년 1.99%에서 지난해 6월 7.01%까지 5%p가량 상승했다.

개인사업자의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 4.19%로 2020년(1.87%)보다 2배 이상 상승했

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11.70%로 2020년(3.91%)과 비교해 7.79%p 올랐다. 이는 2015년 2분기(11.87%) 이후 9년 6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과 행정안전위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 대출 세부 업권별 연체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자영업자대출자 가운데 다중채무자는 176만1000명으로 56.5%를 차지했다. 자영업자 2명중 1명은 다중채무자란 의미다.

다중채무자는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차주를 말한다. 통상은행 이후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으로 대출을 받게되면 신용도가 낮아지고 금리가 높아져 상환 부담이 커질수 있다.

〈2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 ▲ 현재 사무처장,尹 탄핵 선고 지연에 “신중 거듭하며 심리 중”
- ▲ 권성동 원내대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 ▲ 정부, ‘강진 피해’ 미얀마 네피도에 영사 파견... 생필품 지원 예정
- ▲ 여 “문형배·이미션 후임 문제, 민주당 태도 보고 결정”

- ▲ “尹 지키는 게 자유대한민국 지키는 것”... 응원 덕 돌린 김용현 전 장관
- ▲ 오세훈 서울시장, 신혼부부 주택 정책인 ‘미리 내집’ 현장 점검

/사진 뉴시스